

# 찬출(撰出)된 악한: 정명수와 『인조실록』의 개찬

조일수\*

## 〈차 례〉

- 머리말
- 상충된 기록과 효종대의 정치 구도
- 『조선왕조실록』과 현존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 재고(再考)
-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에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후금에 귀의하여 끝내 조선에 파견된 칙사의 지위까지 오른 정명수는 아마도 한국사상 최악의 매국노이자 악한으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다. 적개심에 가득 차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끝까지 괴롭혔다고 기억되는 정명수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할 지라도 원전(原典)을 찾아보면 실록을 포함한 조선시대의 많은 자료에 근거해 있다. 이 글에서는 인조대 『승정원일기』를 효종의 시대에 편찬된 『인조실록』과 대비해 읽는 방법을 이용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명수의 모습이 효종대의 정치적 의제 하에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 재생산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를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실록을 역사적 사실들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이상화(理想化) 하거나 『승정원일기』가 후대에 개수되었으니 개수 당시의 정치적 의제를 반영한다는 주장들의 문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반론을 내놓는다.

[주제어] 실록, 승정원일기, 정명수, 인조, 효종

\*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일본학술진흥회 박사후연구원

## 1. 머리말

조선에서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후금에 귀의하여 끝내 조선에 파견된 칙사의 지위까지 오른 정명수(鄭命壽, ?~?; 만주 이름: Gūlmahūn)는 아마도 한국사상 최악의 매국노이자 악한으로 기억된다. 역사상의 인물들은 악인일 지라도 어느 정도는 입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대의 소설이나 영화 같은 창작물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정명수는 조선에 대한 적개심으로 뚝뚝 뭉쳐 청나라의 권세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괴롭히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이미지는 창작일지라도 많은 부분 조선시대의 기록들에 바탕하고 있다. 정명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조선시대의 찬자(撰者)들이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서였을까?

정치적인 이해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인 인물의 평판이 바뀌는 일은 잦다. 김경서(金景瑞, 1564~1624)나 김자점(金自點, 1588~1652)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기억과 평이 시대를 지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조선시대의 인물들에서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sup>1)</sup> 하지만 정명수의 경우는 놀랍게도 실록을 비롯한 현존하는 거의 모든 기록이 악평으로 일관되어 있다. 『인조실록』은 정명수에 대해 “성질이 본래 교활하여 조선의 사정을 몰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만주] 한(汗)이 신임하고 아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2)</sup> 『효종실록』에는 “정명수가 우리나라에 왕래할 때에 참로에서 폐단을 일으키고 시민(市民)을 침학하여 백성이 장차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했다.<sup>3)</sup>

이런 식의 시각은 개인 기록에도 많이 발견된다. 정두경(鄭斗卿, 1597~1673)에 따르면 “정명수는 성품이 몹시 교활하였다. 병자년의 난리 때 양쪽

1) Sun Joo Kim, “Culture of Remembrance in Late Chosŏn Korea: Bringing an Unknown War Hero Back into History,” *Journal of Social History* 44-2, 2010; 이종필, 「김자점 담론의 추이와 소설적 악인 형상화의 정치적 역할」, 『고소설연구』 35, 2013.

2) 『인조실록』 인조 15년 2월 3일 계유.

3) 『효종실록』 효종 4년 11월 11일 계묘.

의 말을 잘 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로 나왔는데, 그 후로 더욱더 청나라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자 그 위세를 끼고는 우리 임금을 능멸하고 사대부들을 욕보이면서 심지어 구타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여서 하였다. 이에 온 나라 사람들이 이를 갈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그의 위세가 두려워서 감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였다.”<sup>4)</sup>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정명수가 조선에 입힌 해를 논하며 지방수령들 중 “정호(鄭胡)를 접촉한 자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박해하여 [정명수에게] 아첨한다”라고 하였다.<sup>5)</sup>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정명수는 가장 흉악하여 제 부모의 나라를 모욕함이 극도에 이르렀었다”고 썼다.<sup>6)</sup>

다른 기록들에는 어떠한 인물이 악한 정명수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는 식으로 개인을 영웅화시키는 서사를 나타내기도 한다. 조정(趙綱, 1586~1669)의 연보에는 조정이 생전 정명수와 크게 다투었으며, “정명수가 끝까지 선생을 원수처럼 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sup>7)</sup> 인조대 무관인 표정준(表廷俊, ?~?)에 대한 기록에서는 표정준이 “정명수를 만나면 반드시 그를 꾸짖었는데, 정명수는 그럴 때마다 못 들은 체하고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라고 쓰고 있다.<sup>8)</sup> 이만(李曼, 1605~1664)에 대한 기록에선 “정명수가 하고 싶은 대로 대관을 업신여기고 욕설을 하는 등 꼴이 아닌 일이 많았지만 이만이 정도를 지켜서 흔들리지 않으니 정명수 역시 이만을 마음으로 두렵고 어렵게 여겨 꺼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sup>9)</sup>

단순히 정명수와 다투었다는 기록을 넘어, 조선시대의 인물이 못된 정명수를 혼내주었다는 서사도 많이 남아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민성휘(閔聖徽, 1582~1647)가 한때 정명수를 크게 꾸짖으며 “전후로 곤란한 일들은 너로

4) 『동명집』, 18권.

5) 『송자대전』, 108권, 197쪽.

6) 『연암집』, 295쪽.

7) 『용주연보』, 1647년.

8) 『농암집』, 162권, 226쪽.

9) 『기언』, 99권, 184쪽.

말미암아 발생하였으니, 반드시 너의 머리를 잘라야만 뒷걱정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정명수는 그 말을 듣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고 하고 있다.<sup>10)</sup> 조선의 관리를 결박하고 모욕하던 정명수의 만행을 보고 분노한 이완(李浣, 1602~1674)이 정명수를 준엄하게 부르자 정명수가 크게 놀라서 급히 뛰어 내려가 이완에게 절을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sup>11)</sup>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허적(許積, 1610~1680)이 의주부윤으로 일할 때 정명수를 붙잡아 형틀에 얹어 놓고, “너의 삶은 청나라에서 찢었지만 너의 뼈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니, 너의 삶은 청나라로 돌려주고 너의 뼈는 우리나라에 남겨야 되겠다”라고 말하며 정명수의 삶을 도려내라고 명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정명수는 허적에게 애걸하여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sup>12)</sup>

정명수는 때로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제압되었던 용렬한 자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민적(李敏迪, 1625~1673)에 관한 기록에는 1642년 당시 십대였던 이민적이 정명수에게 맞서 “말하는 기운이 조금도 꺾이지 않았으며, 정명수는 본래 성품이 사나웠는데도 [이민적에게] 놀라 탄복하였다”라고 하고 있다.<sup>13)</sup> 병자호란 직후 조선의 신하들이 일부 심양으로 압송 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기록에 따르면 정명수가 당시 압송 당하는 공경들의 자제들을 보려고 관소를 방문하였는데, “본성이 모질고 사나운 데다 청나라의 세력을 업고 조선의 공경들을 멸시하던” 정명수도 신정(申晷, 1628~1687)를 만나자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며” 이 아이의 “빼어난 재주는 두려워 할만하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신정이 “온화한 말씨로 간곡하게 타이르자” 정명수는 신정의 말에 감동하였다고 전한다.<sup>14)</sup>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도 압도당할 만큼 변변하지 못하고 조선의 수많은 인물들과의 다툼에서 줄줄이 패배해 굴복했던 자가 청나라의 권위를 등에 업

10) 『잠곡유고』, 210쪽.

11) 『송자대전』, 113권, 386쪽.

12) 『여유당전집』, 285권, 463쪽.

13) 『도곡집』, 181권, 33쪽.

14) 『분애유고』, 592쪽.

고 횡포를 부리며 조선을 무수히 곤란에 빠뜨렸던 자와 동일인물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허황할 정도로 과도한 묘사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청나라와 조선간의 관계를 오랫동안 매개했던 정명수를 일방적으로 조선을 괴롭히는 악한으로 규정하는 것은 병자호란 이후의 조정관계 상(像) 자체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효종과 신하들이 효종의 부왕이었던 인조가 재위했던 병자호란을 둘러싼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였는가 와도 당연히 연관된다.

이 글은 후대의 시각이 사후에 편집된 자료에 침투하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한 방책으로 효종대 편찬된 『인조실록』과 그보다 더 원(原) 사료에 바탕 한 『승정원일기』를 비교해서 읽는 방법을 취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재생산되어 온 정명수 상(像)의 많은 부분은 효종의 시대로부터 찬출(撰出)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정원일기』의 개수(改修)와 사료적 가치를 둘러싼 여러 논의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밝히며 『인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비교해서 읽는 방법론에 대한 일부 비판에 대한 반론을 내놓는다.

## 2. 상충된 기록과 효종대의 정치 구도

『인조실록』을 비롯한 현존하는 대부분의 관련 자료들은 효종대와 그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정명수가 사리사욕에 불타는 악한이었다는 평가를 반복하고 있다.<sup>15)</sup> 일부 연

15) 김남윤은 소원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인질로 있었을 때의 기록인 『심양장계』를 인용할 때는 조정관계의 문제들을 정명수를 통해서 쉽게 풀어진 면도 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인조실록』에 의거하여 정명수가 청나라의 위세를 등에 업고 조선을 괴롭혔다는 식의 전통적인 해석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인조실록』의 편찬과정에서의 정치성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남윤, 「병자호란 직후(1637~1644) 조정 관계에서 ‘청역’의 존재」, 『한국문화』 40, 2007, 272~277쪽. 김선민의 연구는 단순한 조선 찬출(撰出)이 아닌 청나라의 기인(旗人)으로서의 정명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망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한 단계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이 연구도 한국사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정명수 상(像)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선민, 「조선통사 굴마흔, 청역 정명수」, 『명청사연구』 41, 2014.

구들은 이에 덧붙여 억측에 가까운 주장들마저 하고 있기도 하다. 백옥경은 청이 일부터 정명수 같은 조선인을 전면에 내세워 드러나게 함으로서 비난이 집중되게 하여 청의 지위를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하지만 청이 의도적으로 그런 전략 하에 정명수를 앞세웠다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 한명기는 “조선의 관노에서 상국의 역관으로 변신한 정명수는 관노 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소하면서 동시에 청의 신임도 얻어내려 했던 것이다”라며 정명수의 빼뚫어진 마음씨까지 지적하기도 했다.<sup>17)</sup> 하지만 정명수의 ‘콤플렉스 해소’와 청의 신임간의 관계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조실록』을 비롯한 후대의 자료에 나타나는 정명수 상(像)은 왜곡되어 있다. 하지만 『인조실록』 이전의 기록들에도 정명수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일부 존재한다. 정명수가 조선과 후금의 관계에 있어서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하며 조선의 사료에 등장하는 시점은 1630년대부터이다. 정명수는 병자호란 당시 청군의 일원으로 조선에 오기도 했는데, 전쟁 초반 조선 측을 만난 정명수는 이번 전쟁에서는 항복 외의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전하기도 하였다. 정명수는 자신이 “머리는 깎았지만 마음만은 조선 사람”이라며 전쟁에 희생될 인명을 구하기 위해선 조선이 빨리 항복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침략군에 종군하고 있는 ‘변발한 조선인’은 인조와 조정 신하들에게는 “매우 흉악하게” 비취졌다.<sup>18)</sup>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청나라에 사대하게 된 다음에도 서로를 잘 믿지 못했던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는 조선인 포로나 향화인 문제, 조선 해안에 나타난 명나라 선박들, 정명전(征明戰)을 위한 조선군 징발, 조선 내 반청세력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알력이 이어졌다. 조선 조정의 기록이나 소현세자를 중심으로 한 심양관(審陽館)의 기록인 『심양장계』 등에는 이런 문제로 통역사였던 정명수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다. 일례를 들자면 명나라 배가 조선 해안에 나타난 것을 조선 측이 일부 숨겼다고 의심

16) 백옥경, 「인조조 청의 역관 정명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총』 41, 1992, 10쪽.

17)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181~183쪽.

18) 『승정원일기』 인조 14년 12월 20일 경인.

한 정명수가 “종전에 나라를 그르친 것은 다 명사(名士)들”이라며 아직도 명 나라에 대해 미련을 가지고 있는 듯한 조선 측의 모습을 “소리를 높이고 성을 내며” 비판하기도 했다.<sup>19)</sup>

그리고 정명수는 자신을 위협하거나 무시했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폭력을 휘두른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양관에서 일하고 있던 정뇌경(鄭雷卿, 1608~1639) 등이 정명수를 청나라 형부(刑部)에 고발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조선 측 일부가 자신을 공격한 정뇌경을 편 든다고 생각한 정명수가 말싸움 도중 조선 측 관리를 폭행했다는 기록이 있다.<sup>20)</sup> 그리고 같은 해 정명수가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 조선의 한 군관이 정명수의 방기(房妓)를 혼을 내자 그런 행동이 사신단과 함께 온 정명수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인 정명수가 그 군관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sup>21)</sup> 이런 모습들은 불쌍사나운 것이지만 정명수의 전모(全貌)는 아니다.

『인조실록』을 비롯한 후대의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정명수 상(像)의 대표적인 모습은 청나라의 위세를 이용해 조선 측을 압박하여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에서는 청나라의 위세를 등에 업은 횡포로만 볼 수 없는 정명수의 행보가 광범위하게 등장한다. 물론 정명수가 조선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후대의 사료는 정명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득을 보았는지를 왜곡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조실록』 17년 6월 27일자 기록을 보면 인조가 신하들에게 청나라 사람들의 물욕을 이야기하면서 정명수를 논상하는 장면이 나온다.<sup>22)</sup> 정명수를 왜 논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에 독자들은 청나라 사람들의 욕심

19) 『심양장계』 1642년 10월 16일 계축.

20) 『심양장계』 1639년 4월 20일 정미. 이 사건의 정황은 명확히 알기 힘들어 보인다. 물론 정명수가 실제로 물자를 횡령했을 수도 있으나 청나라 측의 조사과정에 있어서 몇몇 조선인들이 정명수의 편을 들었고 또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사건을 정명수의 “천부적인 악행”과 정뇌경의 “순국(殉國)”으로 대비해서 보는 것은 왜곡의 위험이 있다. 강세구, 『운계 정뇌경의 순국에 관한 일고찰』, 『문명연지』 8-1, 2007 참고. 최근 이명제는 이 사건을 청나라 예부와 호부에서 각각 일하고 있던 조선 출신 통역사들끼리의 다툼에 정뇌경 등이 개입한 사건으로 정리한 바도 있다. 이명제,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98~103쪽.

21)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2월 2일 갑신.

22) 『인조실록』 인조 17년 6월 27일 계축.

과 정명수의 논상을 연관지어서 보게 된다. 하지만 『인조실록』에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승정원일기』에는 나타난다. 하루 전날 『승정원일기』의 기록에서 인조는 “대군(大君)이 서쪽으로 갈 때와 징병과 시녀 등의 일에 정명수가 주선한 공이 많다”라며 이유를 제시한다.<sup>23)</sup> 정명수가 중간에서 조선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였기에 상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명수가 청나라를 섬기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조선의 사정을 신경써주는 모습은 『인조실록』에는 없지만 『승정원일기』에는 계속 나타난다. 동년 12월 2일자 『인조실록』의 기록에는 비변사가 청나라 칙사인 마푸타(Mafuta, 1594~1640)가 조선의 곤궁한 사정을 봐주어 조선이 청에 보내야하는 물품들과 군병 일부를 감해주었다며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인조에게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유는 말하지 않으면서 정명수에게도 물품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sup>24)</sup> 하지만 『승정원일기』에는 물품이 모자라다며 계속 화를 내는 칙사를 달래는 정명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정명수는 조선 측에게 “소인이 어찌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조선이 바쳐야 하는 물품을 줄여주기 위해 “힘을 다하여 간쟁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끝내는 바쳐야 하는 홍시의 숫자를 줄이는데 성공한다.<sup>25)</sup> 비변사는 정명수가 조선을 위해서 힘써주었기에 칙사인 마부타는 물론이고 역관인 정명수에게도 물품을 주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효종대에 편찬된 사료인 『인조실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에 있어서 정명수는 청나라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보처이기도 했다. 1640년 11월경 청나라는 잉굴다이(Ingguldai, 1596~1648)를 조선에 보내어 조선이 향화인과 한인을 잘 쇄환하지 않고 반청 성향을 가진 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몰래 명나라와 접촉하였다고 문책하게 하였다.<sup>26)</sup> 『승정원일기』에는 이때 호조가 잉굴다이의 의중을 제대로 알아낼 방법은 정명수와 접촉하는 것 밖에 없으며 정명수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23)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6월 26일 임자.

24) 『인조실록』 인조 17년 12월 2일 갑신.

25)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2월 2일 갑신;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12월 3일 을유.

26) 『인조실록』 인조 18년 11월 7일 갑신; 『인조실록』 인조 18년 11월 8일 을유.



전하는 이야기가 나타난다.<sup>27)</sup> 하지만 『인조실록』에는 이 무렵 정명수가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반청행위를 운운하며 조선 측을 몰아붙이는 모습과 조선 정부가 정명수에게 직위와 선물을 주고 정명수의 모친에게 월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는다.<sup>28)</sup> 여기에서도 인과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 해에도 정명수는 청나라 측이 조선에 대해 불만스러워 하는 문제들을 몰래 조선 측에 전하였다. 이에 조선의 접대소 측은 정명수에게 “평소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아는 당신에게 달렸으니 깊이 의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정명수는 추가적으로 조선이 청나라에 바칠 세폐미를 줄이고 부족한 일부 표피를 다른 가족으로 바꿔 보겠다고 하였고, 접대소 측은 정명수와 함께 소주를 마시며 정명수가 조선을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사후(伺候)하는 노고를 위로”하기도 하였다.<sup>29)</sup> 호조는 이렇게 조선 측을 위해서 일하는 정명수를 치하하기 위해 선물을 더 주자고도 하였고 인조도 이를 승인하였다.<sup>30)</sup> 하지만 『인조실록』에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청나라 측에서 명나라와 밀무역한 조선인들을 심문할 때 “정명수가 금은을 많이 받았으므로 상당히 감싸주는 기색이 있었다”라고 기록했을 뿐이다.<sup>31)</sup>

물론 정명수가 선물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조선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들의 면천(免賤)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면천 요구에 대한 기록도 인조대 기록과 효종대 기록이 다르다. 『인조실록』이 단순히 정명수가 화를 내며 불손하게 욕심을 부린다는 식으로 정명수의 면천 요구를 기록한 반면, 『승정원일기』에는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의 친척들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명수가 자신이 조선을 위해 나서서 “폐단을 제거한 일이 매우 많았는데 그 값이 공천(公賤) 2구(口)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며

27)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11월 15일 임진.

28) 『인조실록』 인조 18년 11월 19일 병신; 『인조실록』 인조 18년 12월 7일 계축; 『인조실록』 인조 18년 12월 15일 신유.

29)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11월 6일 무인;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11월 9일 신사.

30)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11월 9일 신사.

31) 『인조실록』 인조 19년 11월 12일 갑신.

조선 측에 따졌다고 기록하였다.<sup>32)</sup> 정명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물론 정명수에게 전달된 선물들이나 그의 친척들의 면전을 단순한 뇌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실제로 조선 정부는 정명수에게 선물을 더 주어 그가 조선에 대해 “더욱 감격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고 논의한 적도 있었다.<sup>33)</sup> 하지만 『승정원일기』에 나타나는 대로 정명수가 계속해서 조선 측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물질적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등 조선 측을 실질적으로 도왔다면 이는 정명수가 단순히 악의에 차서 조선정부와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후대의 자료들의 논조와는 전혀 다른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명수의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명수가 본인과 자신의 친척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조선 측을 도운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이 점은 정명수가 청나라의 칙사가 되어 조선에 대해 더 막강한 힘을 쓸 수 있게 된 시점 이후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정명수의 주 목표가 재물이었다면 칙사의 신분을 이용해서 조선에서 더 많은 재물을 갈취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연구는 칙사가 된 정명수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더욱 위세를 부렸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sup>34)</sup> 하지만 칙사가 된 그는 반대로 조선 측의 부담을 덜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1648년의 기록에 따르면 정명수가 조선에 올 때 연로에 있는 백성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여러 고을의 수령들과 백성들이 정명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고, 인주와 정주의 백성들은 정명수를 위해 비석을 세우자고까지 말하였다고 전한다.<sup>35)</sup> 그리고 평안도의 백성들이 정명수를 기리는 비석을 세우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인조는 정명수의 고향인 평안도 은산(殷山)에 정명수를 위한 비를 세우자는 건의를 승인하였다.<sup>36)</sup>

정명수를 위한 비석 건립을 둘러싼 정황을 검토해 보면 백성들의 자발적

32) 『인조실록』 인조 21년 10월 16일 병자; 『승정원일기』 인조 21년 10월 17일 정축.

33) 『승정원일기』 인조 19년 11월 9일 신사.

34) 김남윤, 앞의 논문, 277쪽.

35)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3월 4일 기해.

36)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3월 7일 임인.

인 감사 표현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 건립 관련 조정의 논의에서 비를 세우자는 주장 자체가 “실제로 백성들에게서 나왔다(實出於民)”라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37)</sup> 그리고 비석 건립 전년도인 1647년 조선은 당대인들에게 “전례가 없던 참혹한 가뭄”으로 받아들여진 한해를 겪었다.<sup>38)</sup> 이때 조선 조정은 정명수를 비롯한 사신단 측에 “굶주린 백성이 곧 시체가 되어 구덩이를 메우게 될 지경”이었던 당시 조선의 참혹한 실상을 전한 바 있다.<sup>39)</sup> 이듬해인 1648년에 칙사인 정명수가 연로의 백성들의 부담을 대거 줄여준 것은 기근을 겪고 있던 조선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sup>40)</sup>

정명수가 자연재해에 시달린 조선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는 모습은 비석 건립 이후에도 등장한다. 그는 1649년에 조선에 다시 왔는데 또 다시 민간의 부담을 줄여서 조선 조정에서 “은 나라 백성이 모두 감격하여 기뻐하였다”라고 정명수에게 전하고 있다.<sup>41)</sup> 정명수는 자신이 “가난하고 쇠잔한 시민(市民)들의 일을 어찌 모르겠나”라고 하며 중간에서 다른 칙사들을 달래고 있다고 말하였고, 물품의 값을 전날보다 배로 지급하였다며 자신이 주선한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sup>42)</sup> 또한 그는 조선의 어려운 실상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말하며 청나라 사신단이 받아가려고 한 물품들을 많이 줄였다고도 말하였다.<sup>43)</sup> 정명수가 칙사가 된 후 높아진 직위를 남용하여 조선을 더 괴롭혔다는 것은 증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이다.

37) 『승정원일기』 인조 26년 3월 7일 입인.

38)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5월 20일 경신.

39) 『승정원일기』 인조 25년 7월 25일 갑자.

40) 정명수는 1643년 당시 한재를 겪고 있었던 조선을 배려하여 칙사 행차시기를 농사철 이후로 미루는데 자신이 일조했다고 밝힌 바도 있었다. 『심양장계』 1643년 5월 14일 병오. 칙사로서의 정명수의 이런 모습은 분명 조선의 왕과 신료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도 새롭게 다가왔을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가 보여준 바,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칙사들은 전통적으로 칙사의 지위를 남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징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전 시기에 비해 때로는 몇 배나 많은 재물을 착취하였다. 일본과의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조선의 형편이 그 전보다 좋지 않았음에도 17세기의 명나라 칙사들은 조선의 사정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재경, 『조선시대 명 사신에 대한 외교경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41)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1월 20일 기묘;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1월 22일 신사.

42)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1월 28일 정해.

43)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2월 2일 신묘.

정명수는 그동안 자신이 받은 선물들과 혜택들에 대해 조선 측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인조에 대해 “그동안 주상의 은덕을 깊이 입어 상사(賞賜)가 연달아 내려지고 작질(爵秩)이 높아졌으니, 감격하여 목이 매는 심정을 어떻게 다 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표시와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도 청나라 측이 가져갈 물자들의 양을 줄여 조선의 백성을 위해 “마땅히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하였다.<sup>44)</sup> 이런 모습들은 『인조실록』 편집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었으며 정명수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한 후대의 기록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정명수에 대한 후대의 기록으로 돌아가 보자. 캐리커처에 가까운 개 개인의 기록을 제외하고서라도 정명수가 “성질이 본래 교활하여 조선의 사정을 몰래 고해 바쳤다”라는 『인조실록』의 평가와 “우리나라에 왕래할 때에 참로에서 폐단을 일으키고 시민(市民)을 침략하여 백성이 장차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효종실록』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평가는 『승정원일기』의 많은 기록들에 반추해 볼시 왜곡이 다분해 보인다.<sup>45)</sup> 결론적으로 정명수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왜 이런 왜곡된 평가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선행 연구가 지적한 바, 정명수는 청나라에서 조선과 관련된 일을 맡았던 마푸타, 잉굴다이와 긴밀한 관계였으며, 마푸타와 잉굴다이는 홍타이지 사후 섭정으로서 권력을 잡은 도르곤의 수하들이었다. 그래서 도르곤이 1650년에 갑자기 사망한 것은 정명수에게는 실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6)</sup> 친정을 시작한 순치제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도르곤의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과정은 수많은 인물들의 실각을 가져왔고 명나라의 제도와 인물들이 대거 도입되며 청나라의 지배구조 자체를 크게 변화시켰다.<sup>47)</sup> 정명수의 몰락은 청나라 내의 정치구도의 변화가 큰

44)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2월 5일 갑오.

45) 『인조실록』 인조 15년 2월 3일 계유; 『효종실록』 효종 4년 11월 11일 계묘.

46) 김선민, 앞의 논문, 49~53쪽.

47) Jerry Dennerline, “The Shun-chih Reig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The Ch'ing Dynasty to 1800, Part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101~116.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사료된다.<sup>48)</sup>

비슷한 무렵 조선에서는 인조가 사망하고 효종이 즉위하였다. 효종대의 정국은 여러모로 부왕인 인조대의 정국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효종대의 특이점 중 하나는 이미 멸망한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의 강조이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반정을 통해 즉위한 인조가 계속해서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리를 충순하게 지켰다는 오래된 통설은 최근 위협받고 있다.<sup>49)</sup> 동시에 인조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만을 강조하며 도덕주의적 주장만을 내세웠던 사람들에게 대해 염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이들 소위 ‘척화신(斥和臣)’들에 대해 “대체로 이들은 무죄일 수가 없는 자들이다. 척화가 큰 문제가 될 것임을 모르지 않으면서 마음가짐이 끈지 않은 탓에 명예를 흠치려고 속으로는 걱정하면서 겉으로는 큰소리를 쳤으니, 그 역시 그들의 본심이 아니었다. 군국(軍國)의 대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반드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여 나와서 큰소리쳐 대신을 꿈쩍 못하게 만들었다”며 이들의 “부박한 습속을 키워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sup>50)</sup>

일부 신하들이 척화신 김상헌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하자 인조는 김상헌이 청나라에 굴복한 조정에 남아 있는 것이 자신을 “더럽히는” 일인 양 떠났다고 하고, 병자호란 당시 김상헌이 스스로 목을 졸라 자살하려고 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비웃기도 했다:

내 일찍이 이 말을 듣고는 웃었다. 무릇 목을 매어 죽는 자는 그 목을 매달아야 죽는 것인데, 어찌 앉아서 목을 매어 죽음에 이를 리가 있겠는가. …… 이처럼 가소

48) 김선민, 앞의 논문, 48~61쪽; 이명제, 앞의 논문, 180~193쪽.

49) 오수창은 병자년에 이르기까지 인조 정권이 후금과의 관계를 적극 부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병자호란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한 후견지명과 기억의 조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오수창, 『청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 시민강좌』 36, 2005; 오수창, 『병자호란에 대한 기억의 왜곡과 그 현재적 의미』, 『역사와 현실』 104, 2017.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인조대 대외정책과 국내 정치 동향에 대한 더 정치(精緻)한 분석을 내놓으며 인조대가 ‘친명배금(親明排金)’ 일색이었다는 전통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우경섭, 『인조대 ‘親淸派’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조일수, 『인조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역사비평』 121, 2017;鈴木開, 『明清交替と朝鮮外交』, 刀水書房, 2021; 木村拓, 『朝鮮王朝の侯國の立場と外交』, 汲古叢書, 2021, 310~346쪽.

50)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5월 8일 경오.

로운 사람을 외방에서 소문을 들은 자들은 혹 옳다고 여기고 있으니 세상을 속이는 일이 또한 쉽지 않은가.<sup>51)</sup>

병자호란 후 이런 분위기 하에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던 척화신들이 밀려나고 소위 ‘친청파’가 득세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sup>52)</sup> 조선 측은 청나라의 요청 하에 군대를 파견하여 명나라 공격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군이 북경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인조는 응원하듯 자발적으로 축하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sup>53)</sup> 하지만 효종의 즉위와 함께 추세는 다시 바뀌며 청나라에서 수년간 옥고를 치르고 귀국한 김상헌은 나라의 대로(大老) 대접을 받게 되었다. 효종은 낙향해 있던 김상헌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는데, 예우하는 뜻을 보이기 위해 그를 조정에 들일 때 가마에 태우고 “숙덕(宿德)한 원로대신”이라며 공개적으로 김상헌을 향한 눈물마저 보였다.<sup>54)</sup> 효종의 이런 자세는 김상헌을 “가소롭다”라며 무시했던 인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아직 인조의 장례도 치르지 않았던 시점이지만 조선의 정치지형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효종이 일부 신하들과 함께 대명의리론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인조대의 조선이 실제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으며 끝내 청나라에게 사대하여 충구를 명나라 쪽으로 돌리기까지 했었다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인조가 청

51) 『승정원일기』 인조 17년 2월 27일 을묘.

52) 한명기, 앞의 책, 193~213쪽; 우경섭, 앞의 논문. 물론 김용흠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지적한바 병자호란 이후 공공연한 ‘친청파’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병자호란 이후 소위 ‘척화파’가 다시 조정에서 밀려났으며 명청 전쟁에 대해 그때까지 심정적으로라도 명나라를 지지했던 조선 조정의 태도가 확연히 변한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용흠, 『조선후기 역모 사건과 변동론의 위상: 김자점 역모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0, 2006 참고.

53) 『인조실록』 인조 22년 7월 4일 기축. 물론 이런 정책들이 조명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명청 전쟁의 결말을 아직 알 수 없었던 조선 측은 비밀리에 명나라와 접촉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명나라가 조선과의 접촉을 통해 군사적 효용을 얻어내려 했던 것에 비해 조선 측의 목표는 청에 대한 항복 및 청군을 돕기 위해 조선군을 파병한 것에 대한 명나라 측의 양해를 얻어내려 했던 것이었기에 동상이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103, 2017.

54)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 6월 25일 계축; 『승정원일기』 효종 즉위년 6월 25일 계축.

나라에 항복했던 것은 물론이고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실질적으로 청질서에 계속해서 협력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앨 순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효종과 그 신하들은 조선이 청나라에 협력했던 것을 위협에 의한 강제였던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과거를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효종대에 만들어진 인조와 그의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인 인조의 행장(行狀)과 지문(誌文)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조는 끝까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잊지 않았고 청나라에 대한 사대와 협력은 총칼을 앞세운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사후(死後) 규정되었다.<sup>55)</sup> 그리고 이런 틀 아래에서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명청 전쟁에서 최대한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을 피하려고 했던 인조와 일부 신하들의 모습들은 『인조실록』에서 많은 부분 편집되어 사라졌다.<sup>56)</sup> 효종과 그 신하들은 여기에 덧붙여 병자호란 이후 조청 관계를 매개했던 정명수에 대한 기억도 왜곡하여 조청관계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 자체를 바꾸려고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정명수를 사리사육에 가득 차서 조선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악한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조청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갈등과 폭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정치적 수사로서라도 청나라를 잠재적으로 규정하며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에 대한 의리론을 내세우는 것은 이런 왜곡된 역사상 아래에서야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사리사육에 가득 찬 매국노로서의 정명수의 모습은 효종대 이후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

### 3. 『조선왕조실록』과 현존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 재고(再考)

효종과 그의 신하들 중 다수는 실제로 정명수를 만난 적도 있었고 정명수

55) 『인조실록』 부록.

56) 조일수, 앞의 논문.

가 병자호란 이후의 조정관계에서 여러 번 조선 측을 위해 애써준 것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명수를 탐욕스럽고 교활한 인물로만 기록한 실록은 『승정원일기』의 기록과는 상충되며, 이는 『조선왕조실록』을 역사적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한 1차 사료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나타낸다.<sup>57)</sup> 이미 필자는 인조대 역사 연구에 있어 실록을 비롯한 후대에 편찬된 자료들이 후대의 시각을 과거에 투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승정원일기』를 후대의 자료와 비교해 읽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sup>58)</sup>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 반론을 내놓은 바, 남은 지면에서는 이들의 비판을 검토하고 재반론을 내놓는 것으로 역사적 자료에 후대의 시각이 침투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다시 밝히려고 한다. 반론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첫째는 인조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이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구범진은 “조일수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을 대조하여 후자의 기록 “添削”을 지적한 것에는 동의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하며, “『인조실록』에서 축약 내지 ‘刪削’의 사례는 발견할 수 있을지언정 ‘添加’나 ‘改竄’의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썼다.<sup>59)</sup>

구범진의 주장은 『인조실록』이 1650년대 편찬 당시 가능한 한 역사적 사실을 명백하게 기록했다는 실록에 대한 전통적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미 같은 논문에서 『인조실록』에서의 ‘첨가’와 ‘개찬’의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일례로 1630년(인조 8년)에 일어난 조선의 평안도 가도(假島) 공격 계획을 살펴보자. 이는 인조가 조선군을 이용해서 조선 측 국경지역인 가도를 점거하고 있던 한인(漢人)들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으로, 이 계획은 통상적으로 인조가 가진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로

57) 이런 논의에 있어서 『실록』을 시대마다 바뀌던 편찬 당시 당대인들의 공적 합의의 산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 한 논문이 주목된다. 송지혜,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실록』의 규범적 이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58) 조일수, 앞의 논문.

59) 구범진, 『병자호란 전야 외교 접촉의 실상과 청의 기만 작전, 그리고 『청태종실록』의 기록 조작』, 『동양사학연구』 150, 2020, 255쪽.



이해되어 왔다. 한명기는 인조가 ‘토벌 강박증’에 걸린 것 같았으며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내세우며 신료들의 감성에 호소했었다고 적었다.<sup>60)</sup>

하지만 『승정원일기』에는 가도 문제에 있어서 명나라에 대한 걱정이나 충성심 호소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조선 측은 수년 전부터 가도의 한인들이 몰래 후금 측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끝내 후금에게 투항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조와 신료들은 가도의 한인들이 후금에 투항하게 되면 식량을 자족할 수 없는 그들이 섬에서 나와 평안도 본토 일부를 점령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후금 측이 계속해서 조선 측 압록강 연안 영토가 본래 여진족의 땅이었다고 주장한 바도 있었다. 그래서 가도의 한인들이 평안도 일부를 점유한 채로 후금에게 투항하게 되면 조선은 압록강 연안 영토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와 그의 신하들은 이들이 반란에 성공하여 후금에 투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sup>61)</sup>

그렇다면 왜 한명기를 비롯한 학자들은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에 입각해서 가도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바로 『인조실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조실록』에는 인조와 신하들이 가도를 공격하려고 했던 실제 배경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인조가 “우리나라가 예의의 나라로서 중국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나 맹세코 이 적을 섬멸하여 조금이나마 황은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我國以禮義之邦, 力不足以輔中國, 誓滅此賊, 少答皇恩, 是予之志)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62)</sup> 필자는 맥락상 이 부분이 인조가 명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효종 대에 개작(改作)되었다고 보았다. 필자는 구범진이 비판에 앞서 필자의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것이 인과관계를 바꿔버린 ‘개찬’이 아니라면 무엇이 ‘개찬’인가?

앞서 논한 정명수에 대한 왜곡도 개찬의 예로 볼 수 있다. 『인조실록』에는

60) 한명기, 『역사평설-병자호란 1』, 2013, 269쪽.

61) 조일수, 앞의 논문, 353~357쪽.

62) 『인조실록』 인조 19년 11월 12일 갑신.

정명수에 대한 실상을 왜곡해서 일방적으로 조선을 괴롭히며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으로만 기록하였다. 이는 앞서 논했듯 병자호란 이후의 조정관계를 정명수를 앞세운 청나라의 꺾박과 수탈로 재규정하려고 한 후대인들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보인다. 구범진은 같은 글에서 조정관계에 있어 동시대 청실록의 개찬을 지적하면서도 『인조실록』에는 개찬이 없다고 하였다. 조선인들은 동시대 만주인들과 달리 과거를 왜곡할 일이 없기라도 했던 것인가?

두 번째 비판은 『승정원일기』 자체가 무결한 사료가 아니며, 후대의 파손에 의해 일부 다른 자료를 통해 복원되었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계승범은 남한산성 농성 당시 청이 조선에게 보낸 서신 두 건을 살펴 이 서신들이 조선에서는 다른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sup>63)</sup> 이 논문의 대부분은 『인조실록』의 편찬자들이 훙타이지가 보낸 서신들을 의도적으로 개찬하면서 서신의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다. 계승범은 거기에 덧붙여 『승정원일기』에도 개찬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이 두 원본 서신들 중 하나가 『승정원일기』에는 전반부 절반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승정원일기』가 후대에 왜곡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계승범은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서신의 후반부는 인조에 대한 개인적 모욕이 많이 있다면서 아마도 이런 모욕적인 언사들 때문에 서신의 후반부가 생략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인조실록』을 편찬하던 1650년대까지도, 더 나아가 『승정원일기』를 개수하던 18세기까지도 병자호란은 historiography의 모습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라며 논문의 결론을 냈다.<sup>64)</sup> 계승범의 이런 자구(字句)는 인조대 『승정원일기』가 18세기에 개수되었으므로 오히려 『인조실록』보다 더 후대의 산물임과 동시에 새로 만든 역사적 기록이라는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당연히 『승정원일기』는 무결한 사료가 아니다. 전쟁과 무수한 화재로 조

63) 계승범, 「같은 전쟁 다른 기록: 병자호란 초기 훙타이지의 국서와 조선의 국가정체성 문제」, 『동양사학연구』 147, 2019.

64) 계승범, 앞의 논문, 57쪽.

선 후기의 『승정원일기』는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없어졌고, 이를 부분적으로라도 복원하기 위해 당시 남아있던 다른 자료들을 이용한 복원 작업이 계속 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1746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대대적으로 개수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때 99년간의 일기를 개수하였다.<sup>65)</sup> 일부 학자들은 특히 위에 논한 영조대 개수 작업에서의 당대성과 정치성을 논하였다. 이들은 개수 당시에 영조를 비롯한 조선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무사(無私)하게 개수 하려고 하였지만 개수를 할 때 사용했던 일부 자료를 모으고 반하(頒下)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정치적 성격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sup>66)</sup>

최근에는 『승정원일기』와 개수에 동원된 원 자료 중 남아있는 것과 비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조선 조정이 남한산성에 갇혔던 당시 몇 주간의 일기 자료와 남아있는 『승정원일기』와의 비교연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다.<sup>67)</sup> 이런 배경이 있기에 정만조는 『승정원일기』의 개수는 “일종의 편찬과 같은 형태”라고 보았다.<sup>68)</sup> 오항녕은 “『승정원일기』와 『실록』의 사료 성격에 대한 ‘불공정 재판’의 유일한 근거는 그 ‘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승정원일기』는 “전혀 ‘1차적’이지” 않기에 실록 과 크게 다를 바 없거나 심지어 더 후대에 완성된 자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까지 주장한 바 있다.<sup>69)</sup>

하지만 이들의 비판의 근거는 실제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검토한 것이 아닌 귀납적 추론일 뿐이다. 『승정원일기』는 역사서술의 범주에 들어갈 수

65) 조계영, 「영조 연간의 『개수일기』와 일기청 운영의 실상」, 『규장각』 55, 2019.

66) 정만조,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사료적 가치」, 『한국학논총』 24, 2002, 114~116쪽; 이근호, 「영조 대 『승정원일기』 개수과정의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31, 2004; 강성득, 「영조대 개수본 『승정원 일기』에 나타난 ‘내하일기’ 검토」, 『도시역사문화』 4, 2006; 강성득 「전거를 통해 본 영조대 『승정 원일기』 개수의 성격」, 『사학연구』 88, 2007.

67)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남일, 「병자호란 시기 『승정원일기』의 전거 자료 『남한일기』 연구: 개수본 『승정원일기』와 『남한일기』·이도장의 『승정원일기』의 비교」, 『한국사학사학보』 32, 2015; 김남일, 「『승정원일기』 병자호란 기사의 정분화 연구: 1636년 12월 14일 ~ 30일」,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鈴木開, 伝石之珩撰『南漢日記』と李道長撰『承政院日記』: 丙子の乱関係史料の基礎的 検討」, 『東洋史研究』 79, 2020;鈴木開, 「伝石之珩撰『南漢日記』尊經閣本について」, 『年報朝鮮学』 23, 2020.

68) 정만조, 앞의 논문, 115쪽.

69) 오항녕, 「조선후기 『승정원일기』 개수 연구」, 『태동고전연구』 22, 2006, 184쪽.

있는 작품이나 실록과 같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서술이 아니라 필요한 현안에 따라 전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왕의 참고자료집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런 개수 작업에서 낭청들이 중요한 것을 다 옮기라는 방침 하에 자료들을 옮겨 적는 작업 중 어떤 부분이 그대로 옮겨지고 어떤 부분이 편집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달리 말하면 『승정원일기』를 개수하는 과정에서 개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수 당시 사용된 원 자료와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수 당시의 정치적 의제의 반영 때문이거나 『승정원일기』내에 특정한 서사를 나타내기 위한 획일적인 편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학계에 제출된 바 없다.

이를 실례(實例)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계승범이 거론한 서신들을 다시 검토해보자. 이 두 서신들 중 하나가 왜 『승정원일기』에는 전반부만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물론 계승범이 주장한 대로 그 서신의 후반부에 인조에 대한 모욕적인 말들이 들어 있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다. 남아있는 편지의 전반부에도 인조가 홍타이지의 친족들과 몽골 제왕(諸王)들보다 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어둡고 교만함이 극에 달한다”라는 홍타이지의 모욕적인 인사가 남아있다.<sup>70)</sup> 그렇다면 왜 이런 인신공격도 제거하거나 『인조실록』처럼 아예 다른 내용으로 바꿔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이 다른 인신공격들과는 달리 개수에 참여했던 18세기의 낭청이 가졌던 시각이나 영조대의 정치담론을 반영하는 표현이어서 남겨두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sup>71)</sup>

70)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월 2일 임인.

71) 이런 주장이 논리적으로라도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1650년대의 시각과 18세기의 시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한다. 계승범은 그의 많은 저서들과 논문들에서 조선의 지배층이 빠르면 16세기부터 명나라를 절대 불변의 군부(君父)로서 숭배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런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숭경은 명나라가 망해버린 이후에도 조선 지배계층의 정신세계를 수백 년간 계속해 지배해 왔고 끝내 조선을 쇠퇴의 길로 이끌어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기에 17세기와 18세기 역사관의 차이점을 검토하려면 계승범 본인이 주장한 ‘정지된 시간’이라는 틀에서는 불가능하다. 그의 주장대로 조선후기의 시간이 수백 년간 정체되어 있었다면 17세기와 18세기의 역사관에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생겨날 수 없기에 그의 학설 철회가 먼저다. 계승범의 학설은 한국사 연구에서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세워졌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정체론(停滯論)의 일파(一派)이며 내재적 발전론과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으면서 서로의 레종 데트르가 되어주고 있다.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이제는 반대로 필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필자는 이 글에서 『인조실록』과 그 이후 기록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악한으로서의 정명수의 모습이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모습과 상충된다는 것을 여러 예를 통해서 밝혔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승정원일기』에 나타나는 정명수 상(像)은 『승정원일기』가 온전하진 않지만 『인조실록』에서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명수와 조청관계 관련 원(原) 사료를 일부라도 보존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모습일까? 아니면 일부 학자들의 억측대로 18세기에 『승정원일기』를 개수하던 낭청들이 그들이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정명수의 모습을 뚜렷한 목적도 없이 조직적으로 입을 맞춰서 창작해 냈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

앞서 영조대 『승정원일기』의 개수 과정에 있어서 당대성과 정치성을 거론한 강성득은 인조대를 위시(爲始)한 개수 작업이 왕실과 서인세력의 역사적 정통성 확보와 대명의리론의 강조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결론을 내었다.<sup>72)</sup> 하지만 강성득의 연구는 개수 당시의 정황만 고려하였으며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검토한 것은 아니기에 이런 주장은 단순히 개연성에 근거한 짐작일 뿐이다.<sup>73)</sup> 그의 추측과는 달리 인조대 『승정원일기』에는 이미 완성되어 있던 공적 기록인 『인조실록』에 비해 왕실과 서인세력의 정통성을 강화시켜 줄 만한 서사나 특별히 대명의리론을 강조하는 의의(意義)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필자가 밝힌 인조대 『승정원일기』에 나타나는 서사는 반정 당시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리를 강조했었던 인조와 서인세력이 집권 이후 명나라의 쇠퇴를 접하고 생각을 바꾸어 최대한 명청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정명수를 통해 청나라에 일정 부분 협력하며 청의 신질서에 순치(馴致)되어 간 모습이다.<sup>74)</sup> 어떤 자료가 일정한 시각 하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읽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에 역사 연구에서 존재하는 사료를 읽지 않은 채 정황

72) 강성득, 「전거를 통해 본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의 성격」, 758~759쪽.

73) 그리고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을 통해 인조대 이전의 자료가 그 이후의 자료를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사라진 것은 물론이다.

74) 조일수, 앞의 논문.

적 추측에만 의거하는 귀납적 추론은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두 가지 형태의 비판을 점검하고 필자의 반론을 밝혔다. 이 비판들은 충분한 근거보다는 추측에 바탕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첫 비판과 같이 『승정원일기』와 실록이 내용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승정원일기』가 후대에 개수 되었으므로 그 내용이 개수 당시의 정치적 의제에 따라 변질되었다는 두 번째의 비판이 성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비판이 실증의 문제는 제외하고 논리적으로라도 동시에 성립하려면 조선후기를 정체의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정지된 시간’이라는 틀에서만 가능하다.

조선시대사 연구에 있어서 실록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학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실록을 과도하게 이상화(理想化)해 과거에 대한 최대한 명명백백한 기록으로서 조선시대 ‘문명의 정점’이나 ‘후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을 역사 기록’ 등으로 상정하고 있다.<sup>75)</sup> 하지만 이런 시각은 우리의 선조들이 문치(文治)나 공적인 기록에 있어서 초인적이었거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확실한 질적 우위에 있었다는 국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사고와 가정에 바탕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공적인 기록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왜곡이 조선에 비해 현격히 많았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믿음 하에 성립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실록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안타깝게도 실록의 객관화를 방해하고 역사가의 시각을 실록 안에 가두고 있다. 오항녕은 “『승정원일기』가 승정원을 통과했던 원본 문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보장”이 없음은 물론이고 “또 똑같이 베꼈다고 해도 베낀 이상 원본의 ‘1차생’은 사라진 것”이라며 사료적 성격에 대한 기준을 들이대면서도 실록에 대해서는 역사학에 있어서 1차 사료와 2차 사료를 나누는 기준 자체가 명확할 수 없다면서 그런 구별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실록이 1차 사료도 2차 사료도 아닌 기록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하며 “Archives”로 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본인 스

75) 오항녕, 『실록이란 무엇인가: 조선 문명의 일기』, 역사비평사, 2018.

스로 “이런 논법에 따르면 『승정원일기』도 물론 ‘Archives’가 된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그는 심지어 “실록의 ‘편찬’ 때문에 발생한 ‘주관성’이 『승정원일기』의 ‘편찬’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객관성’에 비해 그토록 치명적인 약점일까?”라는 질문도 하고 있다.<sup>76)</sup> 『승정원일기』가 반드시 실록에 비해 열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자료간의 관계가 우열을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실록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본말이 전도된다.

결론적으로 현존하는 『승정원일기』는 조선 정부가 때때로 과거의 전거를 확인하기 위해 남겨놓은 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승정원일기』는 완전(完全)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원 사료를 일부 보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후대의 파손으로 그때까지 남아있던 자료들을 활용해 일부 개수되었다 할지라도 『승정원일기』는 일정한 의제 하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서술로 볼 수 없다. 물론 실록은 조선시대사 연구에 있어서 불가결한 자료이다. 하지만 실록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넘어서기 위한 비판적 시도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4. 맺음말

강대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끝까지 괴롭히며 사리사욕을 채워갔다고 알려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정명수는 조선 내부의 정치적 지형이 변하고 그가 청나라에서 일어난 권력싸움에 의해 입지가 좁아지고 끝내 퇴출당하여 더 이상 조청관계를 매개하지 못하게 된 효종의 시대에 탄생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조선에 대한 악의가 가득 찬 정명수의 모습은 병자호란 이후의 조청관계를 정명수를 앞세운 청나라의 폭압과 수탈의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는 시각을 강화시키며 조선이 청 질서에 순응해간 모습을 왜

76) 오항녕, 앞의 책, 426~429쪽.

곡시켰다고 보인다. 정명수에 대한 기억을 바꾸는 것은 효종과 신하들이 대명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들 중 하나였던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후대인들은 그렇게 탄생된 정명수 상(像)을 무비판적으로 확대해가며 오늘날까지 재생산 해왔다.

『승정원일기』에 남아있는 원 사료를 통해 재구성한 정명수는 조선에 대한 특별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청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가능하면 조선의 사정을 봐주려고 여러모로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조선 관련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의 기록이 보여주듯 그런 이득들은 많은 경우 정명수가 조선 측의 어려움을 경감해주면서 받은 것이었다. 그가 단순히 물욕에 사로잡힌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가 칙사가 되어 조선에 대해 더 많은 힘을 휘두를 수 있게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선의 부담을 덜어주어 연로의 백성들이 정명수에게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수많은 칙사들이 오고 갔지만 조선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칙사의 덕을 기려 비를 세워주려고 한 적은 몇 번이나 될까? 역사연구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기록에 후대의 시각이 침윤되어 있는 문제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다. 필자가 『인조실록』의 개찬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승정원일기』같은 사료를 활용한 비판적인 독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은 『승정원일기』가 완전한 사료여서가 아니다. 이는 사후에 편집된 자료에 침투할 수밖에 없는 후대의 의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막부득이한 시도일 뿐이다.



■ 참고문헌

『승정원일기』, 『심양장계』, 『인조실록』, 『효종실록』

金 堉(1580~1658), 『潛谷遺稿』(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86, 1992)  
 金昌協(1651~1708), 『農巖集』(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61-162, 1995)  
 朴趾源(1737~1805), 『燕巖集』(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252, 2000)  
 宋時烈(1607~1689), 『宋子大全』(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08-116, 1993)  
 申 晷(1628~1687), 『汾厓遺稿』(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29, 1993)  
 李宜顯(1669~1745), 『陶谷集』(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180-181, 1997)  
 鄭斗卿(1597~1673), 『東溟集』(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 韓7-29)  
 丁若鏞(1762~1836), 『與猶堂全書』(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281-286, 2002)  
 趙威鳳(1621~1675), 『龍州年譜』(趙錫疇 보완, 정선용 옮김, 용주연구회, 2014)  
 許 穆(1595~1682), 『記言』(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98-99, 1992)

강성득, 「영조대 개수본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내하일기’ 검토」, 『도시역사문화』 4, 2006.  
 \_\_\_\_\_, 「전거를 통해 본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의 성격」, 『사학연구』 88, 2007.  
 강세규, 「윤계 정뇌경의 순국에 관한 일고찰」, 『문명연지』 8-1, 2007.  
 구범진, 「병자호란 전야 외교 접촉의 실상과 청의 기만 작전, 그리고 『청태종실록』의 기록 조작」, 『동양사학연구』 150, 2020.  
 김남윤, 「병자호란 직후(1637~1644) 조청 관계에서 ‘청역’의 존재」, 『한국문화』 40, 2007.  
 김선민, 「조선통사 굴마훈, 청역 정명수」, 『명청사연구』 41, 2014.  
 김남일, 「병자호란 시기 『승정원일기』의 전거 자료 『남한일기』 연구: 개수본 『승정원일기』와 『남한일기』 · 이도장의 『승정원일기』의 비교」, 『한국사학사학보』 32, 2015.  
 \_\_\_\_\_, 「『승정원일기』 병자호란 기사의 정본화 연구: 1636년 12월 14일 ~ 30일」, 『한국사학사학보』 38, 2018.  
 김용흥, 「조선후기 역모 사건과 변통론의 위상: 김자점 역모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0, 2006.  
 계승범,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1.  
 \_\_\_\_\_, 「같은 전쟁 다른 기록: 병자호란 초기 홍타이지의 국서와 조선의 국가정체성 문제」, 『동양사학연구』 147, 2019.  
 백옥경, 「인조조 청의 역관 정명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총』 41, 1992.  
 송지혜,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실록』의 규범적 이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우경섭, 「인조대 ‘친청파’의 존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오수창, 「청과의 외교 실상과 병자호란」, 『한국사 시민강좌』 36, 2005.  
 \_\_\_\_\_, 「병자호란에 대한 기억의 왜곡과 그 현재적 의미」, 『역사와 현실』 104, 2017.  
 오형철, 「조선후기 『승정원일기』 개수 연구」, 『태동고전연구』 22, 2006.  
 \_\_\_\_\_, 「실록이란 무엇인가: 조선 문명의 일기」, 역사비평사, 2018.

- 이근호, 「영조대 『승정원일기』 개수과정의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31, 2004.
- 이명제, 「17세기 청·조선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조명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103, 2017.
- \_\_\_\_\_, 「조선시대 명 사신에 대한 외교경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이종필, 「김자점 담론의 추이와 소설적 악인 형상화의 정치적 역할」, 『고소설연구』 35, 2013.
- 정만조, 「승정원일기의 작성과 사료적 가치」, 『한국학논총』 24, 2002.
- 조계영, 「영조 연간의 『개수일기』와 일기청 운영의 실상」, 『규장각』 55, 2019.
- 조일수, 「인조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역사비평』 121, 2017.
-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 \_\_\_\_\_, 『역사평설 - 병자호란 1』, 푸른역사 2013.

- Jerry Dennerline, "The Shun-chih Reig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The Ch'ing Dynasty to 1800, Part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Sun Joo Kim, "Culture of Remembrance in Late Chosŏn Korea: Bringing an Unknown War Hero Back into History." *Journal of Social History* 44-2, 2010.

- 木村拓, 『朝鮮王朝の侯国的立場と外交』, 汲古叢書, 2021.
- 鈴木開, 伝石之珩撰『南漢日記』と李道長撰『承政院日記』: 丙子の乱關係史料の基礎的検討, 『東洋史研究』 79, 2020.
- \_\_\_\_\_, 「伝石之珩撰『南漢日記』尊経閣本について」, 『年報朝鮮学』 23, 2020.
- \_\_\_\_\_, 『明清交替と朝鮮外交』, 刀水書房, 2021.

## The Fabricated Villain: Chǒng Myǒngsu and Alteration of the *Veritable Records of Injo*

Cho, Ilsoo\*

Chǒng Myǒngsu, a Korean lowborn who submitted to the Later Jin (later the Qing empire) and arose to the position of an imperial envoy sent to Korea, is remembered to this day as perhaps the worst traitor and villain in Korean history. While certainly excessive and unrealistic, his image as someone who persistently tormented his country of birth is still rooted in many source materials dating from the Chosŏn period, including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Chosŏn Dynasty*. This article comparatively analyzes the *Journal of the Royal Secretariat* of the Injo period vis-a-vis the *Veritable Records* to argue that the image of Chǒng Myǒngsu has been fabricated in line with the political agenda of the subsequent Hyojong period and reproduced to this day. Lastly, this article clarifies the author's position on the recent debates surrounding the relevant source materials. Some argue that the *Veritable Records* remain faithful to all historical facts. Others have insisted that the *Journal of Royal Secretariat* reflects the political agendas of a later period since it has been partially restored due to damage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the author's rebuttals against such arguments.

**Key words:** Veritable Records, Journal of the Royal Secretariat, Chǒng Myǒngsu, Injo, Hyojong

논문투고일 : 2022년 7월 25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8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8월 31일

\*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Postdoctoral Fellow, Kyoto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in Humanities